

ICT 국제개발협력 연구 시리즈 4.

# 아프리카 ICT 주요 현안: 스마트아프리카연합을 중심으로

김나연\* · 유성훈\*\*

## 1. 개요

지난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018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sup>1)</sup> 및 제6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가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 관련 최대의 행사로 한·아프리카 협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산업화 촉진’을 주제로 다각도의 논의와 정보 공유가 이뤄짐에 따라 향후 한국이 아프리카 산업화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다.

아프리카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2018년 세계은행(WB)의 세계 성장률 전망에서 가나와 에티오피아가 8%대 성장률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상위 10개국 중 6개국이 아프리카 국가이다.

본고에서는 2013년 창설된 스마트아프리카연합(Smart Africa Alliance, SSA)을 중심으로 현재 아프리카 ICT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향후 해당 분야 협력 추진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043)531-4223, nykim@kisdi.re.k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전문연구원, (043)531-4416, shyoo@kisdi.re.kr

1) 남아프리카 국가에서는 5번째로 개최(총 53회 연차총회)

## 2. 스마트아프리카

### (1) 개관

2013년 10월,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Transform Africa Summit(TAS)”에서 7개<sup>2)</sup>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은 ICT를 통한 사회경제 발전 가속화 노력을 촉구하는 ‘스마트아프리카 성명서(Smart Africa Manifesto)’를 채택하였다. 스마트아프리카 성명서는 ‘ICT를 국가 사회경제 발전 의제의 중심으로 둘 것’, ‘ICT(특히 브로드밴드) 접근성 제고’, ‘ICT를 통한 책임성, 효율성 및 개방성 증진’, ‘민간부문을 제1순위로 둘 것’,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한 ICT 활용’이라는 5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동 이니셔티브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프레임워크인 스마트아프리카연합(SAA)의 창설과, 스마트아프리카 의제 촉진을 위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담을 위해 르완다 키갈리에서 2년 주기로 TAS를 개최한다는 결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 성명서는 2014년 10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제22차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 총회에서 공식 승인됨으로써 기존 성명서에 서명한 7개 정상들뿐만 아니라, 54개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ICT 의제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또한 스마트아프리카 성명서가 아프리카 ICT 발전 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한다는 점을 주지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에서도 해당 성명서 이행을 위한 관련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2014년 개최된 ITU 전권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 PP-14) 및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WTDC-14)에서도 ‘스마트아프리카 성명서 이행(Implementation of the Smart Africa Manifesto)’이라는 명으로 각각의 결의 195와 75가 채택되었으며, 동 결의는 ITU 사무국 및 회원들에

2) 르완다, 케냐, 우간다, 남수단, 가봉, 말리, 부르키나파소

계 등 성명서 이행에 대한 노력 촉구 내용을 담고 있다.<sup>3)</sup>

〈표 1〉 스마트아프리카 성명서(Smart Africa Manifesto)

구분	주요 내용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기술(ICT)이 아프리카의 사회경제 발전에 근본적 역할을 수행함을 인지</li> <li>○ 아프리카는 지식경제가 가져오는 기회들에 배제되지 않아야 함을 상기</li> <li>○ ‘커넥트 아프리카 정상회담’ 이후 연결성에 대한 진전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빈곤 감소, 참여 강화, 서비스 전달 향상 및 국민의 번영을 위한 기술의 활용을 염원</li> <li>○ ‘스마트아프리카’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가속화하여 수용가능한 브로드 밴드 접근 및 ICT 활용을 통해 아프리카를 지식경제로 안내하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노력을 기여</li> <li>○ 이에, 여기 모인 국가 및 정부 정상들은 ICT의 적용 및 스마트한 이행을 통한 아프리카의 사회경제적 변혁을 지원할 것과, 스마트 국가 프로그램의 이행을 주도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파트너 및 민간부문의 동참 요청, 아 원칙들에 기여할 것임을 표명함</li> </ul>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원칙 1: ICT를 국가 사회경제 발전 의제의 중심으로 들 것</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st 2015 의제의 이행 준비에 앞서, 빈곤 감소, 번영 창출 및 생산성 증진을 위해 아프리카의 발전 의제에 ICT를 통합 할 것</li> <li>- 교육, 의료, 비즈니스, 농업 및 타 주요 부문의 사회경제적 혜택 제공을 위한 상황에 적합하고, 발전을 지향하며 확장 가능한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혁신을 촉진할 것</li> <li>- 국민의 ICT 활용 역량을 발전시키고 ICT 주도 경제 및 사회의 참여자들의 권한을 강화할 것</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원칙 2: ICT(특히 브로드밴드) 접근성 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연결성 구축을 통해 모두를 위한 적합하고 수용 가능한 접근 목표를 실현할 것</li> <li>- 이의 달성을 위해, 민간 부문 및 관련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하여 국경 간 및 지역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필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li> <li>- 보편적 접근에 대한 제약이 아닌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정책 환경의 진전 및 조화를 지속하여 동 투자활동을 지원할 것</li> </ul> </li> </ul>

3) 결의 75는 2017.10월 개최된 WTDC-17에서 ‘스마트아프리카 선언 이행 및 아프리카 ICT 발전지원 (Implementation of the Smart Africa Manifesto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ector in Africa)’으로 개정됨

구분	주요 내용
	<p>○ 원칙 3: ICT를 통한 책임성, 효율성 및 개방성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채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적 차원의 e-정부 정책을 구축 및 이행할 것</li> <li>- 효율성 증진을 위해 서비스 제공에 있어 ICT를 통합하고, 정부-시민, 정부-비즈니스 및 정부-정부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 및 독려할 것</li> <li>- 국가 기밀, 사생활 보호 및 국가 보안 고려요소들을 고려하여 책임성, 투명성 및 의사결정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오픈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촉진할 것</li> </ul> <p>○ 원칙 4: 민간부문을 제1순위로 들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부문이 사회 변혁을 주도해야 함을 인지하고, 민간 투자를 통한 기술과 혁신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생산성 및 경쟁력 증진을 이루도록 하는 환경조성을 강화할 것</li> <li>- 특히 비즈니스를 위한 시장 및 정보에 대한 접근 증진을 위한 ICT 활용을 촉진할 것</li> <li>- 아프리카 지역이 ICT에 대한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력을 지원하고, 필요한 비즈니스 개발, 재정 및 기술 역량들을 갖춘 지역 혁신 허브의 수를 증가시킬 것</li> </ul> <p>○ 원칙 5: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한 ICT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를 활용한 여성 및 청년층의 권한을 강화 및 특히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속할 것</li> <li>- 환경 자원에서 파생되는 도전과제를 인지하여 기후변화, 클린에너지, 전자폐기물, 도시화, 재난관리 및 기타 위험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ICT를 채택할 것</li> <li>- 지속가능한 이행 보장을 위해 기술은 더욱 비용 효율적이고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컴퓨팅, 이동성, 공유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적절한 혁신을 수용할 것</li> </ul>
<p>이행 프레임 워크</p>	<p>○ 스마트아프리카연합(Smart Africa Allian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아프리카연합은 동 성명서가 실행되도록 이를 이행, 감독 및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임</li> <li>- 여기 모인 국가 및 정부 정상들은 차기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담에서 스마트아프리카 연합이 채택될 것을 제안함</li> <li>- 동 연합은 성명서에 서명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아프리카 연합(AU 위원회, NEPAD Agency, 전담 기구 및 지역경제커뮤니티), 아프리카 경제위원회(ECA),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세계은행(WB),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및 민간 부문의 파트너십이며, 동 파트너십은 3개의 주요 당사자들간의 중재를 통한 스마트아프리카 의제 촉진을 목표로 함</li> </ul> <p>○ (이행 지원) 동 연합은 스마트아프리카 이행을 안내하기 위한 대륙 차원의 전체 목표, 이정표 및 모범사례를 개발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를 위해 각 국가들은 명확한 목표와 이정표를 바탕으로 스마트 국가 프로그램을</li> </ul>

구분	주요 내용
	<p>개발 및 이행할 예정이며, 이는 스마트아프리카 원칙에 부합해야 하고, 연합은 스마트 국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에 있어 국가들에 기술적 지원 제공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은 또한 각국 정부의 스마트 국가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개발 파트너 및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자금 동원을 지원할 것</li> <li>o (이행 점검 및 평가) 연합은 스마트아프리카 이니셔티브 이행에서 얻은 교훈과 진전 사항 평가 및 문서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실행할 것</li> <li>o (의제 촉진) 연합은 스마트아프리카 의제를 촉진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담을 위해 아래와 같은 플랫폼을 제공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참여 국가들은 연례 SMART Country Days 개최할 것</li> <li>- 르완다 키갈리에서 2년 주기로 “Transform Africa Summit”를 개최할 것</li> </ul> </li> </ul>

자료: 스마트아프리카(2018)

스마트아프리카 성명서의 실질적 이행, 점검,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설립된 스마트아프리카연합(SAA)은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로 대표되는 아프리카연합(AU)뿐만 아니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은행(W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기타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아프리카 연합 사무국은 르완다 키갈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ITU 사무총장이었던 하마둔 투레가 총국장을 맡고 있다. 2018년 기준, 54개 아프리카 국가 중 총 24개국(회원(Member States)으로, AU, ITU 등 9개 파트너 기관, 플래티넘(5개), 골드(4개), 실버(4개), 스타트업(9개), 학계(4개)로 이루어진 총 26개의 민간 부문 파트너가 가입한 상태이다.

〈표 2〉 스마트아프리카 회원 현황

구분	회원국·회원사
회원국 (Member States)	- (24개국) 르완다, 케냐, 우간다, 남수단, 가봉, 세네갈, 말리, 차드, 부르키나파소, 앙골라, 지부티, 코트디부아르, 기니, 이집트, 베냉, 토고, 니제르, 튀니지,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상투메프린시페,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가나

구분	회원국·회원사
파트너 (Partner Organizations)	- (9개 기관) AU, ITU, UNECA, AfDB, NEPAD, ATU, ICANN, WB, GSMA
민간 부문 (Private Sector)	- (플래티넘회원, 5개사) Inmarsat, Ericsson, Econet, Huawei, MTN Group - (골드회원, 4개사) Intel, Golbal Voice Group S.A, Microsoft, Orange - (실버회원, 4개사) Vanu, Sparkle, Culligan, Arabsat - (스타트업, 9개사) Afritek IT, Cyberlibris, Unchartered Play inc, Gebeya Limited, ANSUT, Group Defis et Strategies, SCHOOLS.EU, Azercosmos, SAHASRA ELECTRONICS - (학계, 4개 기관) United Kingdom Telecommunication Academy, United States Telecommunication Training Institute, Carnegie Mellon University, Ecole Superieure Multinationale des Telecommun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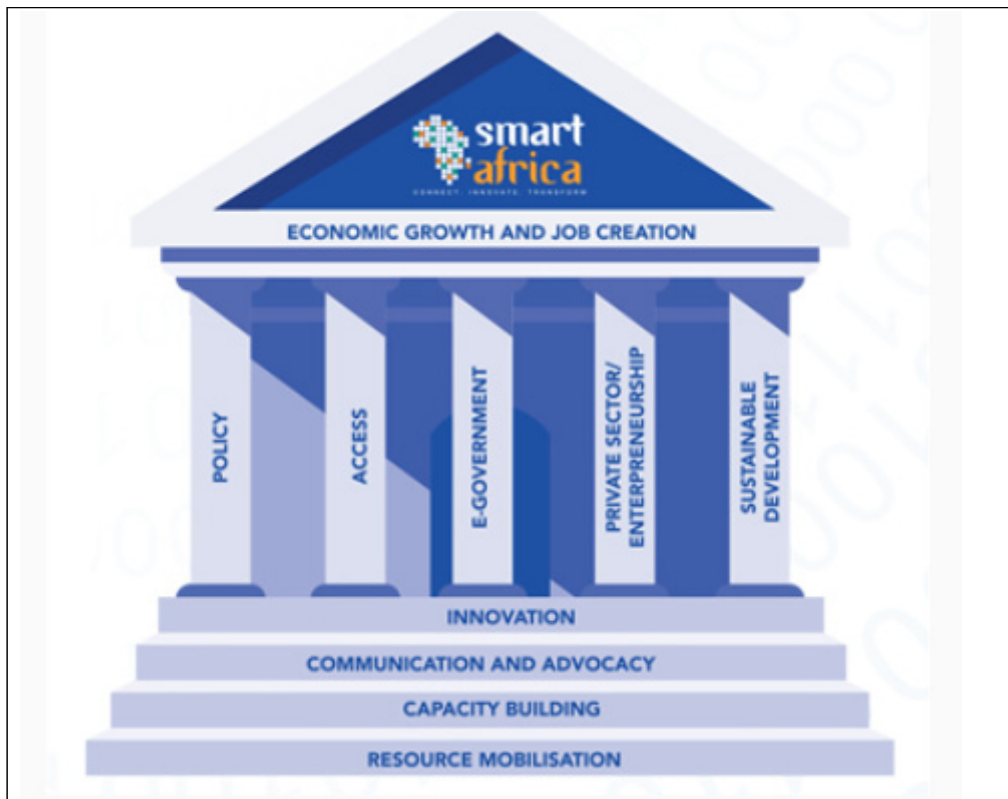
자료: 스마트아프리카(2018)

한편 SAA는 이사회(Board),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사무국(Secretariat)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사회[의장: 르완다 대통령 폴 카가메(Paul Kagame)]는 르완다, 우간다, 케냐, 가봉, 남수단, 토고, 세네갈, 말리, 차드, 앙골라,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총 12개국 대통령과, ITU 사무총장, AU 위원장 및 Inmarsat, Ericsson, Econet, Huawei 대표로 구성되며 가장 고위급 결정체로 스마트아프리카 의제를 촉진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각 회원국의 ICT 장관, ITU, AU, WB, AfDB 등 관련 국제·지역기구 및 민간 부문 파트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활동 보고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스마트아프리카 비전의 이행 촉진과 SAA의 중점 프로젝트(Flagship Project)를 선정하고 사무국의 활동을 총괄 감독한다.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은 기술혁신부, 통신부, 모바일·투자부, 프로젝트관리부로 나뉘며 자원 및 동원, 민간부문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규제 환경 강화 및 전략 개발 지원,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촉진 등의 임무를 수행 중에 있다.

스마트아프리카연합은 (1)혁신, (2)소통·지지, (3)역량 구축, (4)자원 동원이라는 4가지 교차 조력요소(Enablers)를 기반으로, 스마트아프리카 성명서의 5개 원칙을 반영하

여 (1)정책, (2)접근, (3)전자정부, (4)민간부문·기업가정신, (5)지속가능발전이라는 5개의 핵심 신념(Pillar)을 중심으로, 스마트아프리카 성명서의 궁극적 목표인 ‘경제성장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1] 스마트아프리카연합(SAA) 프레임워크



자료: 스마트아프리카(2018)

## (2) “Transform Africa Summit(TAS)” 주요 논의 내용

TAS는 아프리카의 디지털 혁신 구축과 가속화 및 유지를 위한 새로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 국제기구, 민간 섹터의 리더들이 참여

하는 아프리카 주도의 정례 포럼 행사이다. 지식경제 구현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는 TAS는 회원국들이 더욱 경쟁력 있고 유연하며 개방적인 혁신스마트경제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ICT 혁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ICT 활용(브로드밴드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3〉 Transform Africa Summit(TAS) 개최 연혁 및 주제

구분	개최년월	장소	주제
1차	2013.10.29.~31.	르완다 키갈리	오늘날의 미래 (The Future Delivered Today)
2차	2015.10.19.~21.	르완다 키갈리	디지털혁신 가속화 (Accelerating Digital Innovation)
3차	2017.05.10.~12.	르완다 키갈리	스마트시티로의 빠른 진전 (Smart cities Fast Forward)
4차	2018.05.07.~11.	르완다 키갈리	아프리카 단일 디지털 시장 가속화 (Accelerating Africa's Single Digital Market)

자료: 스마트아프리카(2018)

제1차 TAS는 ‘오늘날의 미래’를 주제로 2013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되었으며, ICT 활용을 통해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아프리카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특히 선진 ICT 기술 도입을 통해 효율성·개방성·투명성 제고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성장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제1차 TAS에는 KT 이석채 회장이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진행하였으며 르완다 정부와 함께 전시회를 총괄 운영하였다.

2013년 스마트아프리카 성명서 채택 이래 해당 성명서가 아프리카연합(AU) 및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됨에 따라 2015년 10월에 개최된 제2



차 TAS에서는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주제로 회원국들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스마트시티로의 빠른 진전’을 주제로 개최된 제3차 TAS에서는 한국의 참여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아프리카 주요국 정관계 인사 약 3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KT는 현지 자회사 AOS(Africa Olleh Service Ltd.)와 함께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헬스케어 플랫폼과 연동되는 모바일 진단기기 4종과 각 마을의 보건소와 병원을 연결하는 ‘KT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였다. 또한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KAC)와 한글과컴퓨터(한컴)는 SAA와 아프리카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항을 포함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한컴은 행사 기간에 문서 프로그램, 음성인식 통·번역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 등의 제품 전시를 통해 아프리카 현지에서의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였다.

올해 개최된 제4차 TAS에서는 ‘아프리카 단일 디지털 시장 가속화’를 주제로 아프리카 54개국이 단일화된 디지털 시장을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비전 달성을 위한 현실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변혁을 촉진할 수 있는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IoT, 빅데이터, AI, 가상 및 증강현실, 드론, 로봇, 3D 프린팅, 블록체인, 그린에너지, 핀테크 및 기타 최신 주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함께 마련되었다.

### (3) 스마트아프리카연합(SAA) 국가별 중점 프로젝트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은 ICT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아프리카연합(SAA) 플랫폼을 활용한 중점 프로젝트를 아래와 같이 추진 중에 있다.

〈표 4〉 SAA 국가별 중점 프로젝트(Flagships Project)

구분	국가	분야	주요내용
1	르완다	스마트시티 &	-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운송, 스마트 워터 및 위생, 스마트 소셜 서비스, 스마트 환경 구현을 위해, 벽촌지역과 도시에

구분	국가	분야	주요내용
		커뮤니티	<p>서의 중요 공공 시설 및 서비스를 ICT 인프라와 통합하여 관리 및 제공하는 것을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들로부터 수용가능한 브로드밴드 연결성 제공을 위해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도시 및 지방 정부 행정당국 간 혁신적인 공공 민간 파트너십(PPP) 모델 활용 예정이며, 모든 주요 시장, 공공장소, 버스, 도서관, 학교, 병원 및 공공빌딩들은 저렴한 혹은 무료 브로드밴드 제공을 목표로 함</li> </ul>
2	부르키나파소	역량강화(장학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인력의 부족은 경제 발전에 있어 큰 제약이며, 이에 스마트아프리카 장학기금은 필요한 ICT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li> <li>- 아프리카 내 최고 ICT Centers of Excellence 아프리카 학생들의 마스터 및 자격증 수준의 교육과정 취득에 있어 장학금 지급</li> </ul>
3	우간다	빅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표준, 규범 및 방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여, 증거기반 및 데이터 중심의 결정과 정책입안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측정활동을 지원</li> </ul>
4	세네갈	ICT 접근성(브로드밴드) & 녹색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관리 및 보존에 ICT를 활용하고, 전자폐기물 감소 및 효율적인 에너지 창출, 소비 및 분배 실현을 목표로 함</li> <li>- 아프리카 국가들의 온라인 e-정부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개발; 구식 컴퓨터 및 기타 ICT 하드웨어의 재활용 및 개조 메커니즘 구축; 스마트 그리드 기술 채택 촉진; 그린 ICT에 대한 관심 고양 지원</li> </ul>
5	가봉	ICT 산업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지 산업 개발)</b> 국가 및 지역 IXP 및 루트네임서버와 같은 주요 설비 구축을 지원하며, 이는 로컬 콘텐츠 서비스, 데이터 백업, 로컬 스트리밍 미디어 및 모바일 앱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비즈니스의 창출기회를 촉진예정</li> <li>- <b>(클라우드 컴퓨팅)</b> 클라우드를 통해 가상으로 이용가능한 현재 기술들을 공유하여 적절한 운영비용으로 기술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제공 지원</li> <li>- <b>(ICT 제조 산업)</b> 현지 소비와 아프리카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한 모바일 폰, 태블릿, 랩탑 및 기타 ICT 장비의 제조를 위한 경쟁력 있는 공장 설립 지원</li> </ul>

구분	국가	분야	주요내용
			- (스마트 디바이스) 혁신적인 대출 제도를 통해 아프리카 내 스마트 기기 보급 증진
6	케냐	디지털경제	- (로컬 콘텐츠) 교육 및 정보 콘텐츠에 음악, 드라마, 다큐멘터리 및 예술로부터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의 양을 증진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을 목표 - (서비스) 금융, 비즈니스, 의료, 교육부문에서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는 “killer apps” 제공 개발 및 확산에 중점을 둠 - (빅데이터) 정부가 시민 및 기업들에 대해 최신 빅데이터 통계를 제공하여, 범죄 예방, 운송, 국방, 수입관리, 환경보호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효율성 증진 지원 - (디지털 지불) 소비자, 은행, 정부로의 디지털 지불방식 유입과 활용을 증진 지원
7	남수단	디지털 리터러시	-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ICT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2018년까지 아프리카를 가장 높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대륙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는 정부, 민간 교육/연구 기관 및 금융기관 간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으로 이루어짐
8	코트디부아르	사이버 보안	-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고 공격에 대비해 주요 ICT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아프리카가 공격 대응 역량을 구축하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며, 사이버 취약점들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 및 규제 환경 구현 촉진
9	말리	기업가 청년층 혁신 및 일자리 창출	- 혁신 창조 및 청년 디지털 사업가들에 공동작업 공간을 제공하며, 해커톤(앱 콘테스트 및 경연대회)에 자금을 조달하고 현지의 혁신을 성공적인 비즈니스 벤처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

자료: 스마트아프리카(2018)

또한 상기 프로젝트 외 기니, 차드, 앙골라, 지부티 또한 ICT 접근성 제고와 경제발전을 위한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다. 향후에는 스마트 빌리지, 전자결제 및 e-농업, e-헬스, e-교육, 사물인터넷, 디지털 도서관, m-뱅킹, 아프리카 위성통신 및 해저광케이블, 아프리카과학기술아카데미(ASTA)까지 최신 ICT 발전 동향 및 아프리카

협력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범주의 프로젝트를 추진 예정에 있다.

### 3. 결 어

2018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향후 한-아프리카 협력이 신속성, 효율성, 높은 개발 효과, 아프리카의 숨겨진 잠재력 발굴이라는 방향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8년 KOAFEC 장관회의의 공동선언문에서는 인프라 개발, 정보통신기술(ICT), 인적자원 개발, 농촌 개발, 기후변화, 개발경험 공유 등 6대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지역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와의 협력에 있어 ICT 분야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아프리카의 ICT 주요 현안을 스마트아프리카의 주요 논의 내용과 중점 프로젝트 현황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협력 추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한편 ITU에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ITU-D 부문의 4년 주기 총회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TDC-17)에서도 아프리카 지역의 우선 과제로 디지털경제 구축 및 혁신 촉진, 신흥 브로드밴드 기술 촉진, 신뢰 및 보안 구축, 인적·제도적 역량 구축,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관리 및 점검과 디지털 방송전환 등 5가지의 이니셔티브를 채택한 바 있다.

한-아프리카 ICT 협력에 있어 기존의 정형화된 방식의 지원보다는 혁신과 융합의 요소가 포함된 협력 분야 도출과 전략적 이행을 위한 추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김태은 (2014), “아프리카 인터넷의 현황과 잠재력”,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6권 1호 통권569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p. 23~3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6), “2016 아프리카 진출기업 현황 조사 및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16-0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제이크 브라이트, 오브리 흐루비 (2016), 『넥스트 아프리카』, 이영래(역), 서울: 미래의창
- 황규득 외 (2015),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전략심층연구 15-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GSMA (2015).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Mobile Money.” London: GSMA.
- ITU (2017). “WTDC-17 Final Report.” ITU Ondiege, Peter O. (2015). “Regulatory Impact on Mobile Money and Financial Inclusion in African Countries - Kenya, Nigeria, Tanzania and Uganda.”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 Smart Africa (2015). “Smart Africa Strategic Vision.” Smart Africa.
- The Economist (2016). “Special Report: Business in Africa.” The Economist.
- World Bank (2014). “The Global Findex Database 2014: Measuring Financial Inclusion Around the World.” Washington: WB.
- 《동아일보》(2013. 10. 30.), “ ‘아프리카에 급한 건 초고속인터넷’ 이석재 KT회장 ‘TAS 2013’ 연설”.
- 《아이뉴스》(2017. 5. 11.). “KT, ‘TAS 2017’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선보”.
- 《이투데이》(2018. 5. 31.), “[이제는 아프리카]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 파트너... 교류 확대로 더 가까이”.
- 《헬로티》(2017. 5. 12.).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KACI), 스마트 아프리카와 클라우드 협력한다”.